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chjss@hri.co.kr

I.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독일 중소기업

○ 독일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 UNIDO(국제산업개발기구, 2009)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독일은 2005년 기준 122개국 중 6위를 기록. 제조업의 세계 수출 점유율도 2006년 기준 15.5%로 2000년 12.8%로 2.7%p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하락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선진국 중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빠른 경제회복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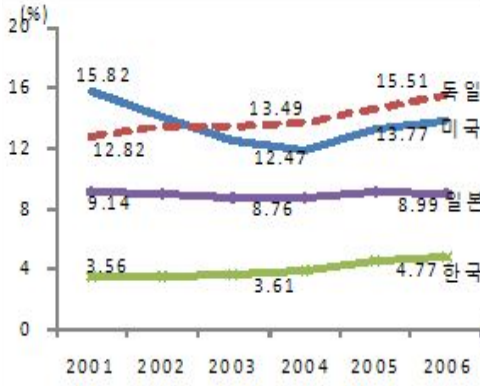
---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강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과 과제」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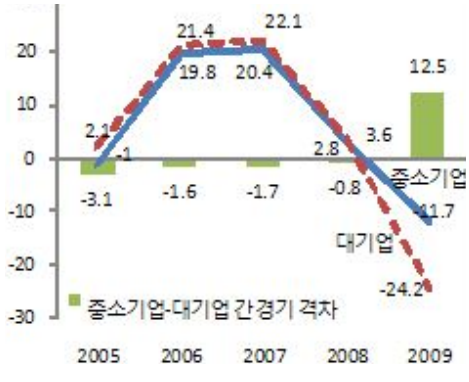
- 독일 GDP성장률[1]은 2010년 연간 3.5%를 기록하였고 2009년 크게 감소했던 수출도 2010년에 두 자릿수로 회복. 특히, 2006년 10.8%를 기록했던 실업률도 2010년 7.7%, 2011년 들어서도 계속 하락하여 6월에는 7%로 30년래 최저치로 떨어짐

○ 독일 중소기업들은 위기 이후 경기 하락폭이 낮았고 대기업과의 경기 격차도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 회복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받음

- 대기업의 경기 지수가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2009년 중소기업의 경기 지수 하락폭이 대기업보다 크게 낮아 중소기업의 경기 격차가 대기업을 12.5p 앞섬



자료: ISTANS.
[그림 1] 독일 제조업의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자료: 독일 통계청.
[그림 2] 독일 대-중소기업 경기지수와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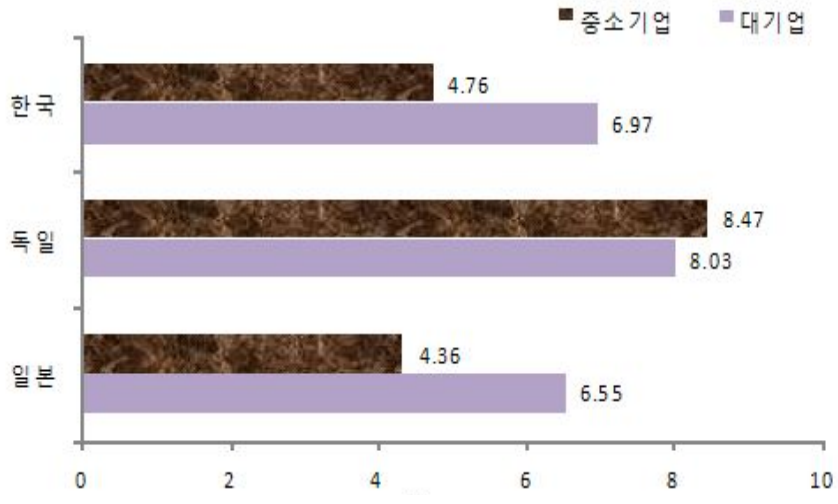
○ '히든 챔피언'[2]으로 명명되는 독일의 세계 1등 강소기업들도 꾸준히 증가

- 1990년 헤르먼 시먼은 그의 저서 '히든 챔피언' 에서 세계 니치 마켓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3위안에 드는 독일 중소기업이 500여개에 이른다고 발표
- 최근 독일의 베른 베노어(Venohr) 교수[3]가 독일기업을 추적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 IMF에 따르면 2010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1.7%로 독일은 이보다 2배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11년에도 유로존의 1.6% 대비 2.5%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2) 독일의 헤르만 지먼(Hermann Simon) 교수가 1990년대 초반 발견하고 분석했는데,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점유율 1~3위를 차지하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무명성을 즐기며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칭
3) 베른 베노어(2010), "The power of uncommon common sense management principles- The secret recipe of German Mittelstand companies".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 안의 독일 히든챔피언은 약 1,500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1,350개가 중소기업(Mittelstand)[4]으로 분류됨

- 이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공학, 산업 생산품&서비스, 소비자 생산품, 자동차 및 부속품 등 5개 분야임



자료:IMD(2011).

[그림 3] 대-중소기업의 효율성 순위

<표1> 독일 중소기업의 현황(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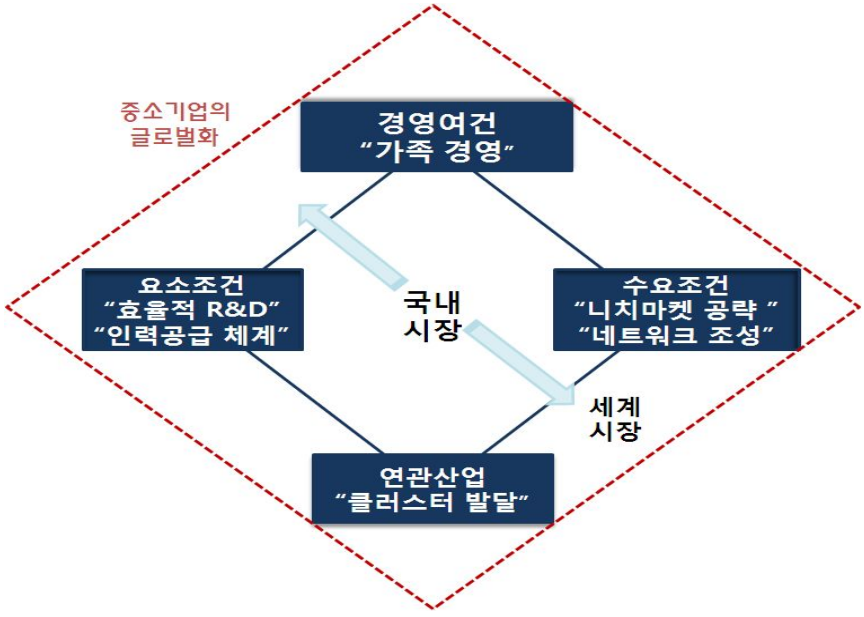
	전체기업(A)	중소기업(B)	B/A
기업수 (백만 개)	3.68	3.67	99.6%
매출액 (억 유로)	54,122	19,996	36.9%
고용인원 (백만 명)	25.74	20.45	79.5%
직업훈련자 (백만명)	1.70	1.41	83.1%
순부가가치	-	-	48.6%

주: 매출액과 순부가가치는 2008년 기준
자료: 독일 중소기업연구소(Ifm Bonn, 2010).

4) 베른 베노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모의 독일 히든 챔피언들의 평균 매출액은 10억 유로, 평균 고용인원은 600명이며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62%로 나타남.

2. 독일 중소기업(Mittelstand)의 5대 경쟁력

○ 마이클 포터[5]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확장하여 국제 시장의 환경까지 고려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그림 4]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분석

○ 기업의 경쟁력은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산업 및 경영 여건이 다이아몬드 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높은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극대화됨

-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은 천연자원이나 노동력과 같은 기초 요소와 높은 기술의 고급요소로 구분되고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은 국내외 시장 개발과 관련
- 한편, 연관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은 산업의 클러스터 개발이나 시너지 창출과 관련되며, 경영여건(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은 경쟁, 전략 등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업 경영과 연관됨

5)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1990년 <국가의 경쟁우위>에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처음 소개하여 단순한 '부(Wealth)'가 아니라 '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통해 경쟁력을 분석하였음.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의 경쟁우위 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석에 적용되고 있음

○ 독일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의 4가지 경쟁 요인을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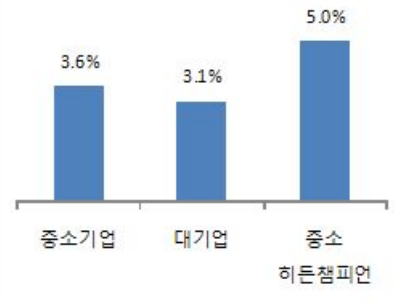
- 요소조건으로 효율적 R&D와 인력공급 체계, 수요조건으로 세계적 니치마켓 공략과 네트워크 조성, 연관산업으로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마지막으로 경영조건으로서 가족경영을 통한 안정적 경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요소 조건 1: 연구개발)** 기업, 정부 모두 연구개발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발달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혁신을 꾸준히 제고시킴

- 2007년 기준 독일 중소기업의 매출액 중 연구투자비(기업내부 연구개발비 기준)는 3.6%로 대기업의 3.1%[6]보다 높고, 독일의 히든챔피언들은 5%[7]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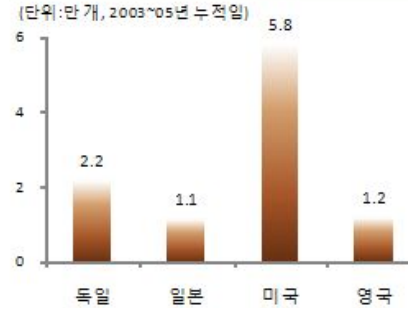
- 2009년 기준 국가별 연구개발의 네트워크 지수를 살펴보면, 독일(1.940점) 3위, 한국(1.337점)은 16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산학연 협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독일이 3위, 국제협력 부문도 독일 2위로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중소기업의 다국적 특허권 등록수도 2003~2005년 2.2만 건으로 세계 2위를 기록. 반면 국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수행 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은 2009년 8월말 6,381건[8]에 불과



자료: 독일 학문통계 진흥원, 베른 베노어.

[그림 4] 독일기업의 매출액 대비 내부 연구투자비



자료:Fraunhofer Institute, "Transnational Patents", 2009년 2월.

[그림 5] 주요국 중소기업의 다국적 특허권 등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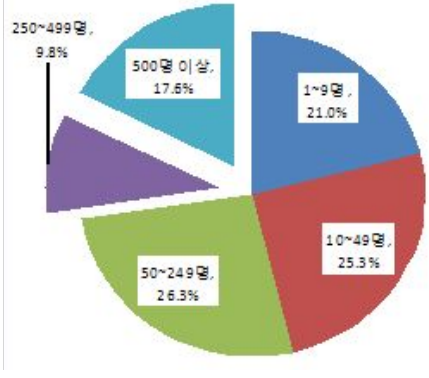
6) 독일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기업규모별 매출액 중 R&D 투자비용은 499명 이하 기업 평균 3.6%, 500명 이상 대기업은 3.1%로 나타남.

7) 베른 베노어 교수는 독일의 중소 히든 챔피언들이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중이 5.0%로 세계 1,250개의 R&D 집중기업의 3.6%보다 1.4%p 높다고 지적. "Das Geheimnis der Weltmarktfuehrer", 2011년 1월.

8)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통계 조사 자료 중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21,271개중소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기업 당 0.3건을 보유)의 수이며,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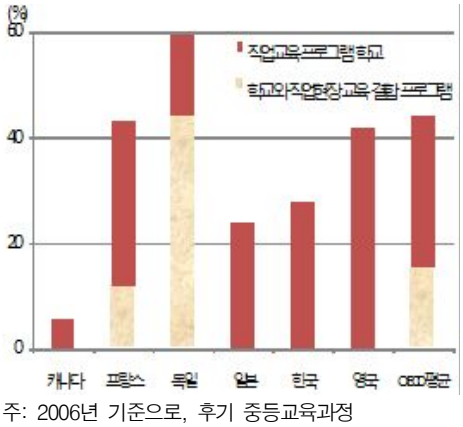
○ **(요소 조건 2: 인력공급)** 독특한 도제시스템(Apprenticeship System)과 현장 실습 체계(Trained by Germany)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꾸준히 공급

- 전체 학생의 약 27%(2005년 기준)[9]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직업 교육생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Mittelstand)에서 직업 훈련
- 직업 교육생을 받는 기업은 2008년 기준 총 494,156개사이며, 이 중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489,614개로 총 99.1%에 달함. 한편, 87%에 해당하는 약 43만여 기업은 2~99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임
- 특히, 독일의 듀얼 직업실습 시스템은 교육에서 일자리로 가는 전환비용을 감소시키고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
- 한편, OECD 국가별 직업교육(고등교육과정) 시스템 비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독일의 직업교육의 비중은 59.4%로 OECD 평균인 44%에 비해 15%p 이상 높고, 학교와 직업현장이 결합된 듀얼 직업교육 비중이 44%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자료: 독일 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독일 직업교육 및 훈련 보고서, 2008년.

[그림 6] 회사 규모별 직업 교육생 비중



주: 2006년 기준으로, 후기 중등교육과정 (ISCED3)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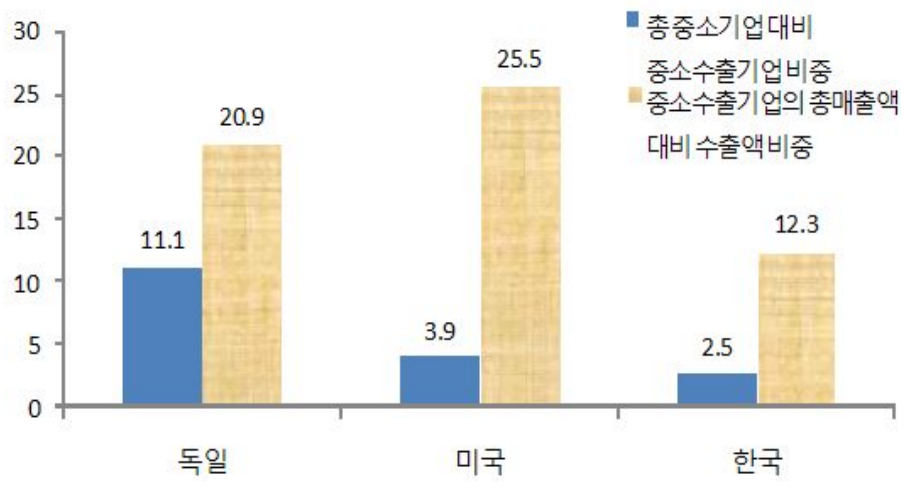
자료: OECD,'Learning for Jobs',2009.

[그림 7] 주요국 직업교육 시스템 비교

9) 2005년 기준 전체 일반 학교의 학생수는 9.7 백만명이며, 이 중 직업학교 학생은 2.7백만명 수준

○ **(수요 조건: 니치마켓 집중)**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니치마켓에 집중하여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그 분야의 세계 선두기업으로 성장

- 독일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기업의 97.6%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매출액 비중은 20.9%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율이 높음
- 2008년 기준 독일 전체 수출 기업 361,338개사 중 중소기업은 352,761개사로 97.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이 11.1%로 미국 4%(23.8만개, 2006), 한국 2.5%(7.5만개)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특히 히든 챔피언으로 명명되는 다수의 독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가격과 물량 중심의 시장에 진출하기보다(Don't dance where the elephants play)는 기술 중심의 니치(Niche) 마켓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선두기업으로 성장
- 해외 시장 개발에 있어서는 3자 무역을 통한 수출보다는 현지화 및 판매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고객을 직접 찾아(Close to the customer)가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
-



주: 독일과 미국은 500인 이하, 한국 300인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독일 중소기업연구원

[그림 8] 국가별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비중

<표 2>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2008)

(단위: 개, 10억 유로)

구분	전체기업(A)	중소기업(B)	비중(B/A)
수출기업 수	361,338 (11.3%)	352,761 (11.1%)	97.6%
수출기업의 전체 매출액	3,319.8	849.3	25.6%
수출 기업의 수출 매출액	1,024.4	200.0	19.5%

주:( )는 전체 기업 중 수출 기업의 비중임.
자료: 독일 중소기업연구원.

○ **(연관 산업: 클러스터 발전)** 지역 중심으로 다양하게 조성된 산업 클러스터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연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냄

- 독일 히든챔피언들은 주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도 이미 조성되어 독일 중소기업을 지원
- 산업별 클러스터의 조성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은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주변의 남부지방, 전자산업은 뮌헨과 바이에른 주의 뉴른베르크-에랑겐 지역, 독일 기계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하여 슈투트가르트 인근에 밀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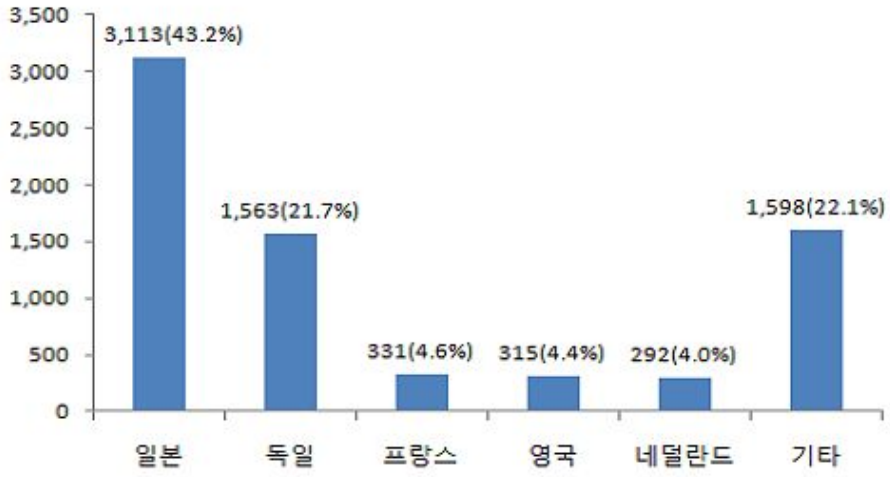
○ **(경영 여건: 가족기업)** 역사가 오래되고 전문화된 전통 가족 기업의 형태를 유지

- 독일 전체 기업 중 95.3%, 중소기업의 97.3%가 가족기업으로 분류됨
- 가족기업은 직원, 공급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 당사자와의 높은 신뢰 관계의 형성과 기업가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강한 면모를 보임
- 파이낸셜 타임즈(FT)와 독일 한텔스 블라트의 조사에 따르면,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가족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와 사업 다각화, 낮은 부채비율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중 일반기업보다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 클러스터 조성의 국제 경쟁력 순위

	클러스터 조성정도	국내공급자 양적수준	국내공급자 질적수준
독일	12위 (5.0)	3위 (6.0)	3위 (6.2)
일본	2위 (5.4)	2위 (6.4)	4위 (6.2)
한국	25위 (4.4)	25위 (5.3)	33위 (5.2)

주: ( ) 안은 1~7의 지수로 7로 갈수록 좋음.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s', 2010.



주: 창업 200년 이상 기업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과 시사점 ', 2011년 1월

[그림 9] 세계 장수기업 보유 수

○ 한편,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

- 2007년 시작된 "KMU-Innovative" 사업으로 2010년 6월 기준 이미 바이오 기술, 에너지 기술, ICT, 나노기술 등 450개 프로젝트에 3억 유로를 지원
- 또한, 2008년 시작된 ZIM(Central Innovation Programme SMEs)[10]은 독일 중소기업의 시장 중심적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000명 이하 고용 기업에게 2013년까지 혁신을 위한 연계 자금을 지원

10) ZIM의 자금지원 형태는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 정책민간 연구기관 간 개발을 지원하는 협조 프로젝트(Cooperation Projects), 중소기업의 시장 중심의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프로젝트, 개별 중소기업의 내적 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프로젝트로 구분됨

3. 국내 중소기업에의 시사점

1) 시사점

○ 국내 중소기업을 독일의 경쟁 요인과 비교해 보면, 요소조건으로 기술개발 효율성이 낮고 연구 및 숙련직의 인력부족률은 높으며, 수요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하락하고 수출 기업수도 2.5%에 불과하며 연관산업으로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가 약하며 기업 평균연령도 10여년 안팎으로 기업의 영속성이 매우 낮음

○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

2) 과제

○ **(요소조건 1: 연구개발)** 중소기업과 학계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 방법은 소기업일수록 자체개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기술개발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 한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2004년 2,788개에서 2009년 1,295개로 감소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특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을 고려

○ **(요소조건 2: 인력공급)**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체계를 정비

- 기술력이 높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 양성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숙련 인력을 양성할 있는 직업 훈련학교(Profession Training School)로 발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난에 대응

○ **(수요조건: 글로벌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화가 중요하며, 해외 진출 시에는 신규 수출 시장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협력 및 네트워크 조성까지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 독일은 1992~1999년까지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KFW-SME Programme Abroad"으로 총 38.9억 유로를 투자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기업의 40% 이상이 신규 고용 효과를 경험. 평균적으로 해외투자를 통해 19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남
-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에도 단기적인 수출 시장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 투자 등 해외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표 4〉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현황(%)

	기술개발 방법		인력부족률				수출비중	
	자체 개발	외부와 공동개발	전체	연구직	기능직	기술직	2001	2009
중소제조업	75.8	17.4	2.51	3.65	3.06	3.30	42.9	32.3
소기업	77.5	16.1	3.34	4.96	3.94	4.32	-	-
중기업	66.3	25.0	0.93	1.68	1.04	1.14	-	-

자료: 중소기업청, 2009.

○ **(연관관계: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더불어 내수 기반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

○ **(경영 여건: 기업가 정신 고취와 전문화된 경영)** 중소기업의 경영자들도 세계 선두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개발,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가 정신을 키워나가야 함

-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족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확대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 **(Bottom-Up 방식의 정부 지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 1등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체계적이고 집중화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

- 한국형 500개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Top-down 방식의 지원 정책보다는 개발·혁신, 인력양성, 글로벌화, 자금지원 측면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집중화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SDI